

# FTA FOCUS

## 우리나라 FTA 지원제도 및 시사점

라공우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사)한국관세학회 회장

# 우리나라 FTA 지원제도 및 시사점



**라공우**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사)한국관세학회 회장

## 1. 다자주의 속에 지역주의의 가속화 지속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환경을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들은 1944년 세계경제의 번영과 성장을 위하여 1948년 1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발족시키게 된다.

그러나 GATT는 법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하였고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어 협정 참여국들의 불공정행위 및 자위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1986년 개시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는 GATT체제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GATT체제를 다자간 무역 기구화하는 작업을 협상과제로 채택하게 되어, 이후 새로운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1995년 출범시키게 되었다.

WTO 체제하에서는 많은 회원국이 모두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다자주의체제하에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주의가 대두되게 되었으며, 세계 각국은 FTA<sup>1)</sup>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일반화됐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WTO 자료<sup>2)</sup>를 바탕으로 보면, FTA로 대표되는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은 2021년 5월 현재 349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우선 WTO 출범 이후 도하개발어젠다(DDA)로 대표되는 다자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 다자주의 차원의 무역자유화 논의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각국들이 개별 차원의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양자 혹은 복수국 간의 협상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 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다.

2) <http://www.wto.org>

## II. 본문

### 1. 동시다발적,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추진 전략 구사

우리 정부는 전략적으로 FTA에 임하고 있는데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을 통해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함으로써 그간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만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게 되면 FTA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FTA와 무역흑자가 예상되는

FTA가 동시에 체결됨으로써 무역적자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다.

둘째로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중국, ASEAN의 5개 국가와의 교역이 우리 전체 교역량의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본다.

셋째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으며, WTO의 규범과 상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고 있다.

## 2. 42개의 FTA 지원사업을 진행 중

이처럼 우리 정부도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16개<sup>3)</sup>의 FTA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하여 우리 국민 및 기업 등이 FTA를 적기에 활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FTA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sup>4)</sup>

주요 사업은 FTA 활용 촉진, FTA 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4개 분야 4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보면, FTA 활용촉진지원(YES FTA 전문교육, 대학 FTA 강좌 지원, FTA 이러닝 등 11개 사업), FTA 시장 진출 지원(수출지원기반 활용,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 등 18개),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무역조정 지원, 재도약 지원자금 등 9개), 한·중 FTA 특화사업(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신성장기반자금, 긴급 경영안정 자금, 검역해소 품목 및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 4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필자가 대학기관에 있다 보니 주요 인력 양성 관련 사업과 유관기관의 교육 내용과 이러닝 교육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 지원과 사이버 FTA 관련 수강 홍보 극대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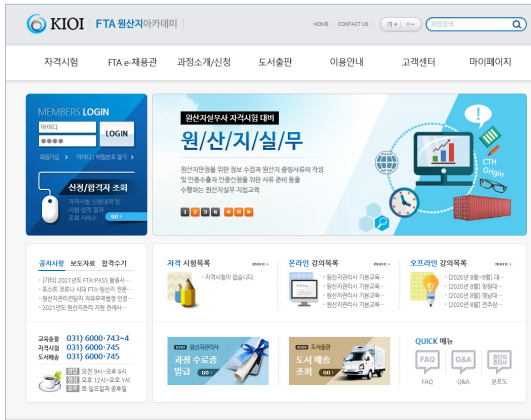
첫째,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의 YES FTA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 교육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FTA 전문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집합과정(비대면 교육 병행), 온라인과정, 수요자맞춤형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을 보면 집합과정은 중소기업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FTA 첫걸음, FTA 활용, FTA-PASS 품목 분류, 인증수출자,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검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과정은 역시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C/O 작성하기, HS 통칙 이해하기, FTA-PASS 사용하기 등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자맞춤형과정은 주로 업체 방문을 통한 1:1 수출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정부 부처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16개 유관기관

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100호, 2021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2021.2.1



국제원산지정보원의 FTA 원산지 아카데미



FTA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필요하다면 다양한 FTA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본 교육은 온라인 과정도 있지만 집합교육을 대도시(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그 외 지역 또한 교육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다.

둘째, 대학 FTA 강좌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KOTRA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학 상경계 학과(무역, 국제관계, 통상 등)에 FTA 활용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필요한 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강좌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강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매주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옴니버스 형태의 교육과정이다.

이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 강좌 수는 약 34개 내외로 지원 강좌 수가 전국 관련학과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필자가 있는 대학에서도 여러 해 동안 이 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강좌를 제공해왔으나, 불명확한 예산사용 지침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예산 운용상의 경직성과 불명확한 지침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FTA 이러닝 관련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용 제고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COVID-19 팬데믹으로 대학교육은 물론 초중고에서도 사이버



강의(비대면 강의)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FTA 관련 교육도 비대면 강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홍보와 관련하여 업계에서 요청한 예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별 수출기업 대상 FTA 활용 기업간담회 결과<sup>5)</sup>에서 FTA와 관련하여 FTA 관련 교육 시 온라인 교육 병행 지원 요청, 현장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 수강 지원 요청 등의 애로 사항을 요청하였다.<sup>6)</sup>

###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 FTA 지원제도는 우리정부의 FTA 추진전략에 따라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지만 FTA 관련 컨설팅, 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활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푸시 알림, SNS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고, 불명확한 예산사용 지침 등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 총괄기획과, 인천 수출기업 대상 FTA 활용 기업간담회 결과(2021.3.25.)

6) 이에 따라 KOTRA에서는 FTA 활용 컨설팅 교육의 경우 올해 상반기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오프라인 개최 시에도 온라인으로 병행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오프라인 강의 대신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 교육을 줌으로 실시간 강의 송출을 하고 있으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민간사이버 FTA는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